

노혁 왕지

(盧革 王旨)

지정번호 _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32호(2014. 9. 1. 지정)

소재지 _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시대 _ 조선시대(1401년, 태종 1년)

규모 _ 가로 60.5cm 세로 76.5cm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는 충남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각종 유물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전시되어 있다. 특히 2층 상설전시관에 올라가 안 내표지판을 따라 관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풍스러워 보이는 한 폭의 족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족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상화나 예술 작품이 아닌 누르스름하게 바랜 커다란 종이에 몇 자 안되는 초서로 휘날려 쓴 문서를 담고있다.

27자로 구성된 이 문서는 1401년(태종 1년)에 성균생원 노혁이 동진사 제23인에 급제하자 국왕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내려준 과거합격증서로, 일명 '노혁 왕지'라고 칭해진다. 왕지는 조선 초기에 임금의 4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 '사령장'이다. 노혁은 조선 초기에 문과에 급제해 사재감 부정, 사헌부장령을 거쳐 1434년(세종 16년)에 홍주목사를 역임한 인물로서, 공주시 우성면 동목리 일대로 입향하여 공주지역 만경노씨의 터전을 마련한 자이다.

왕지는 1425년(세종 7)에 '교지(敎旨)'라는 문서명으로 고치기 이전에 약 30여년 정도만 사용되었던 만큼 희귀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 문서 행정, 과거제도, 인장, 서체, 지질(紙質)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노혁 왕지'는 무엇보다도 품격을 배가시키는 상황과 여기에 얹힌 특별한 기록이 있어 여타 왕지와는 더욱 차별화된다. 특별한 기록이란 왕지

하단에 보이는 27행의 초서체로 된 발문이다. 이 발문은 사계 김장생의 현손이자 조선 후기 정치가 겸 문장가였던 퇴어 김진상(退漁 金鎭商, 1684~1755)이 1754년(영조 30년)에 작성한 글이다. 그는 노혁의 후손인 노이형(盧以亨)과의 친분으로 인연해 왕지를 빌려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혁이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역임한 관직, 집안에 전해 내려온 상황, 감정 및 품평 등을 써서 왕지 아래에 배치한 후 족자로 꾸며 돌려주었다.

'노혁 왕지'는 자료적 희귀성과 학술적 가치는 물론 600여년 넘게 왕지를 지켜온 만경노씨 가문의 노력과 높은 안목을 지닌 김진상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 소 희

